

시인의 마을

만추가경(晩秋佳景)

누 구에게나 사랑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다
어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장이 마구마구 벌렁거리
사랑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다
어찌저고 이렇게 예쁘단 말인가
어찌저고 내 심장을 가을 가을
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가
죽기 전에?
심장이 멈추기 전에?
수확을 기다리는 곡식을
반이라도 닦아야 할 텐데
이유 없이 떨어지는 만추지 않고
침만 꼰꼰 딱 심키며
틀을 찾아보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어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찌저고 저렇게 예쁘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정말, 이리다가, 사랑하다가
어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장이 마구마구 벌렁거리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사랑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다

만추가경(晩秋佳景) 늦가을의 아름다움
나을 경치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풍경
또는 뒤늦게 큰 결실을 맺음을
이르는 말.

〈시조를 답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나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그런데 나는 유독 가을에 시나 수
필 등 다양한 취미를 주로 표창해
터트려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둡은 글을 보
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나의 새로운
이라고 할까, 반가우면서도 이렇게
편식을 했던가, 글쓰기에서 말이다.
반성해본다. 그러면서도 이 글을 쓰
고 있는 지금 향유인 가을이 눈에
들어온다.

잠시 교정을 거닐어본다. 기온이
내려가 흡기는 하지만, 견딜만하다.
햇살은 너무나 눈에 부사다. 모과나
쿠 이래 떨어진 열 익은 사과에 반
사된 햇살은 싱그러움까지 하다. 정
말,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도 좋을 만
큼 그런 날, 그런 날의 하루가 오늘
이다.

심장이 뛰고, 이유 없이 땀뚝뚝
나오고, 험담 푼뚝뚝 뉘어가는 봄
이 없는 그 날, 이런 가을을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눈에 들어오는 건, 자제히 보지 않
으면, 어무 것도 아닌 것 같다. 그
어무 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어찌
저고 저렇게 예쁘지 입이 다물어지
지 않는다.

정말, 이리다가, 사랑하다가, 어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심장이 마구
마구 벌렁거리 사랑하다가 죽어버릴
것 같다. 누구에게나 사랑하다가 죽
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날이 있다?
그대는 어떠세요?

사설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비 문제

전북 도내 무료 경로식당의 한
끼 급식비가 너무 작다는 지적
이 많다. 무료 경로식당의 급식
비가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현
재 전북의 무료 경로 식당은 모
두 48곳에 이른다.

이용하는 어르신은 2천100명가
량이다. 문제는 한 끼 급식비가
11년째 김밥 한 줄 값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 자
치단체가 지원하는 한 명당 급
식비는 김밥 한 줄 값 정도인 2
천5백 원이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급식
비다. 김밥 어느 노인 복지관
무료 경로 식당에는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들이 잇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선다. 최근 어느 날
반찬은 숙주 미나리 무침과 깻
잎, 배추김치, 갈치조림 한 조각
이었다.

갈치조림 같은 생선이나 고기
류는 양이 모자라 더 먹고 싶어
도 쉽지 않다.

어르신들은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일주일 치 주간 식단표를 보면

찾아볼 수 없다.
도내 무료 경로 식당은 전라북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급식비에
의존해 운영된다. 그러나 한 명
당 지원금이 2천5백 원으로
2011년부터 무려 11년째 제자리
다. 아동 무료 급식비 6천 원의
절반도 안 된다.

실제로 2,500원 가지고 어르신
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천500
원은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다. 전국 평균보다
도 600원 이상 적다.

1인당 지원금이 가장 높은 시
도는 전남과 제주로 4천5백 원
이다. 말로만 백세시대를 지향
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노인
복지 문제가 허술해서는 선진국
이 될 수 없다.

노인 급식 문제는 노인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전북 도내 무료
경로식당의 급식비 조정이 시급
하다. 경로식당에서 모든 저소
득층 어르신들이 눈치 보지 않
고 마음껏 점심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서두르기 바란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

요즘 반려동물 역시 인간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인식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사람
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정서적으
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
든 동물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애정을 쏟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체온은 사람보다
1~2도가량 높다. 안으면 따뜻
할 뿐만 아니라 포근한 털이 있
어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을 준다. 반려동물은 사람
의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한편 전주시가 효자 공원묘지
인근에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례
식장을 허가했다. 2년 전 한
업체가 이곳에 반려동물 장례식
장을 지으려 했지만 당초 전주
시는 불허했다.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 장묘업 기본계획 수립 전
까지는 시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 5가지 사유를 들었다. 업체
는 곧바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
고 1심 재판부는 전주시가 재량

권을 남용했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전주시가 항소를 포기
하면서 장례식장 건립이 본격적
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에는 지난 2016년부터 삼천
동과 산정동 등에 네 차례나 반
려동물 장례식장 건립 신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를 제외하고
전주시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
로 모두 불허 처분을 내렸다.
행정 소송으로 이어진 삼천동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갔다가 장
례식장 신축이 무산되기도 했
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전주
시가 이번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송에서 패했고 허가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
다.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장례식
장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전주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반려동
물 장례식장 반대 운동을 펼치
기로 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
인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제18회 쇼팽 피아노 콩쿠르, 부루스 리우 우승



캐나다 피아니스트 부루스 리우(왼쪽)가 2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8회 프레데릭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로 발표된 후 반응하고 있다. 전 세계 90여 명의 피아니스트가 참가한 이번 콩쿠르에 우리나라의 이혁은 12명이 오르는 최종 결승에는 올랐으나 6위까지의 수상권에는 들지 못했다

코로나19 부실 대응 비난하는 브라질 시위대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 밖에서 시위대가 코로나19로 숨진 희생자들을 상징하기 위해 가짜 피로 뒤덮인 천을 덮고 누워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 상원 위원회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 19 대응을 망쳐 브라질이 세계 2위의 코로나19 사망자 국가가 됐다며 대통령을 반인륜적 범죄 및 기타 혐의의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